

목포항 참조기 성수기 얼음대란 우려

얼음생산 55% 담당 업체 2곳

삼학도 복원사업으로 폐쇄

얼음 쪼개 주는 쇠빙탑 철거

목포수협 대책 마련 간담회

본격적인 참조기 조업 철을 맞아 목포지역 얼음 공급 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목포수협과 안강망 등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11월까지 가을 참조기 잡이 출어 여선이 신고 가야 할 얼음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목포시의 삼학도 복원사업으로 얼음 생산 업체인 대흥수산 등 2곳이 10월 폐업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얼음을 작게 쪼개 어선에 실어주는 쇠빙탑 2곳이 철거 예정이다.

이 두 업체는 1일 1800각(각당 130kg)을 생산, 지역 얼음 생산의 55%를 담당했다.

한 어민은 “쇠빙탑 두 곳이 없어지면 얼음 적재와 수돗물 공급이 최소 2시간 정도 늦어져 물 때 출어를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해처럼 위판장 부족과 얼음 공급 차질로 어민들이 제때 위판을 보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대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재발할 우려도 높다고 어민들

은 지적했다.

이에 목포수협은 최근 선주단체·민간 제빙업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목포수협은 자체적으로 성수기 이전까지 얼음 1만2500각을 생산 비축해 공급 부족에 대비하기로 했다.

지역 제빙업체(가창제빙, 신영아이스)도 생산 시설을 증설(1일 600각)하기로 했다고 수협은 밝혔다.

수협 관계자는 “얼음 부족 사태에 대한 장기적 대책으로 수산물 물류 유통시설 건립(제2제빙·냉동·냉장창고) 사업이 확정돼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해남군 3개 하천 개선복구사업 대상지 선정

복구 사업비 324억원 확보

해남군이 현산천(사진), 대흥사천, 조산천 등 3개 하천이 재해방지를 위한 개선복구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총 32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해당 하천들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제방 유실 등 큰 피해를 입었으며, 하천의 굴곡이 심하고 교량 아래 물이 통과하는 단면이 부족해 가옥과 농경지 침수 등 반복적인 재해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군은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항구적인 재해 방지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했다. 이번 개선복구사업을 통해 3곳 하천에 대해 약 13km의 제방과 호안을 보강하고 교량 16개 재가설, 보 및 낙차공 7개소 및 배수구조물 5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원상대 복구보다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선복구사업으로 실시, 반복적인 피해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할 예정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전북 어가 돕자”...완도군, 전국 공직자 대상 판촉 행사

13일까지...언택트 마케팅 강화

완도군이 오는 13일까지 2주간 전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완도 전북 생산자 돕기’ 판촉 행사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침체에 고수온과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전북 폐사 우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생산어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단체는 (사)완도군전북생산자협회, (사)한국전북유통협회, (사)남도전북연합회, (사)한국전북수출협회이다.

행사 기간 활 전복은 1kg당 15~16미는 3만원, 2kg는 5만8000원이다. 택배비는 무료다.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해수와 산소를 주입해 포장·판매되며, 전화주문은 (사)한국전북수출협회로 하면 된다.



완도 전복.

완도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언택트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

8월부터 3개월 간 방송매체를 통한 ‘전북’ 광고

를 실시해 추석 명절 이후까지 전북이 지속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정보·예능 등 다양한 TV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해 전북과 광어, 해조류 등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면보다는 온라인을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소비 트렌드에 맞게 대형 온라인 쇼핑과 연계해 온라인 판촉전을 연말까지 열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유통 업체와 함께 하는 추석 명절 판촉전과 싱싱한 완도 전복을 직접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도 준비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언택트 소비 시대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전북 홍보와 소비 촉진 행사를 실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산업을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 향화도~송이도 여객선 운항 재개

향화도~송이도 구간에 신규 여객선이 정기 운항을 시작했다.

이 항로는 여객선 운항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지만 송이도 주민과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영광군이 2018년 3월 여객선사와 협약을 체결해 여객선을 운항하고 운항결손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2019년 12월 기존 여객 선사 사정으로 여객선 운항중단 통보 후 여객선 사업자 선정공고를 3차례 실시했고, 운항결손금 지원 문제 등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지 않아 신규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신진해운이 새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30일 자로 향화도~송이도 항로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송이도 주민들은 여객선 운항중단 후 화물선으로 이동하며 많은 불편을 겪었지만 새로운 여객선 운항으로 한숨을 달게 됐다. 또한 많은 관광객이 왕래하는 휴가철에 여객선을 운항할 수 있게 돼 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이도는 몽돌해수욕장, 아름다운 일몰, 기암괴석으로 해양수산부의 전국의 아름다운 섬 100선, 행정안전부의 찾아가고 싶은 섬 33선에 선정될 정도로 때묻지 않은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앞으로 송이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해상교통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

장보고 한상 어워드 수상자 스토리 전시 ‘명예의 전당’ 설립

완도읍 장보고기념관 옆에

완도군 전시기획물 설치 완료

이달 임시 개관·10월 정식 개관

장보고글로벌재단(이사장 김덕룡)이 역대 ‘장보고 한상 어워드’(장한상) 수상자의 성공 스토리를 전시하는 ‘장보고 한상 명예의 전당’(명예의 전당)을 세웠다.

재단은 완도군과 함께 명예의 전당에 전시할 기획물 설치 공사를 최근 완료했다. 개관식은 10월 22일 열리며 앞서 8월 임시 개관한다.

완도읍 청해진로에 있는 장보고기념관 옆에 마련된 명예의 전당 1층에는 장보고 한상관, 2020년 수상자와 역대 수상자, 한민족-코리아인 디아스포라 비교 등 전시 코너와 완도 향토 역사



장보고 한상 명예의 전당 조감도.

전시관이 설치돼 있다.

장보고 한상관은 장보고 한상과 명예의 전당 개념과 역대 장보고 한상 어워드 수상자 선정 자

료, 수상자 기증품 등을 전시한다.

홍명기 미국 듀라코트 전 회장(2017년), 박종범 오스트리아 영상그룹 회장(2018년), 한장우 일본 마루한 회장(2019년), 오세영 라오스 코리아 그룹 회장(2020년)이 장한상 대상을 각각 받았다.

828년 장보고가 건설한 청해진은 우리나라 최초 국토 균형 발전 사례이며 한국 민간 무역의 발상지와 최초 국제 무역항, 장보고 글로벌 상단의 활동 근거지다.

명예의 전당 2층에는 관람객들이 화면을 터치하면 역대 수상자의 약력과 성공 스토리, 동영상과 사진 자료 등을 볼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가 설치돼 있다.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에서 당나라 명주(현재 Ningbo)까지 항해하는 VR(가상현실) 체험장도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암군 여름방학 ‘우리가족 곤충 탐사대’ 운영

영암군이 여름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족 곤충 탐사대’를 운영한다.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부모와 자녀가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탐구하고 관찰하는 학습의 장을 만들어 보기 위해 마련했다. 해설사와 함께 영암군 곤충박물관 관람을 통해 곤충의 진화와 생존전략을 이해하고 참여가 정에는 직접 장수풍뎅이를 키워볼 수 있는 체험세

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곤충에 관심이 있는 8-13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일부터 5일간 접수한다. QR코드와 구글 폼을 활용한 모바일 신청으로 선착순 50가족을 선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프로그램은 가족단위로 운영되며 기간 내 가족이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에 참여하면 된다. /영암=전봉천 기자 jbh@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